

157.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

서라벌 옛터 전 - 에 연꽃이 이 울 어 라
 동지사 오가 던 - 길 삼천리 트였 건 만

6

선비네 흰옷 자 - 락 어둠에 질 어 갈 - 제
 복음의 사도 앞 - 에 단혀진 조국 의 - 문

11

진리의 찬란한 - 빛 그 몸 에 듬뿍 안 고
 겨레의 찬깨 우 - 려 애타신그 의 녘 이

16

한 떨기 무궁화 로 피 어 난 님 이 시 여
 이 역의 별빛 아 래 외로이 슬 이 꿇 어 라